

«끼아라는
왜
하느님을
따르기로
했나요?»



내 가 하느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라,
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,
귀 에 들리는 강한 음성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
것이에요. 그래서 나는 **그 분을 따랐는데,**
그 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.

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,
여러분이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,
그 분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고
여러분은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그분의
부르심에 답 하는 것이에요.

Chiara

